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45장** ..... **다같이**

1.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증거 없어도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 갈 때에 우리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요한계시록 2:1-7** ..... **인도자**

-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 시는 이가 이르시되
-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설 교** ..... **“네 처음 사랑은”**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네 처음 사랑은”

(요한계시록 2:1-7)

1세기의 교회는 로마제국의 박해로 참 어려웠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제국을 유지했던 이들에게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주(主) 쿼리오스시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골칫덩어리였다. 곧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성도들은 핍박을 견디든지 숨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해야 했다. ▶지금 고령의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어느 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보고 듣는 것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 하셨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항구 도시로,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 도시 중앙에는 저 유명한 다이애나 신전이 자리했고, 자연히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셨다. 일곱 별은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 일곱 촛대는 교회들을 말한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계 2:2-3).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다. 하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2:4) 하신다. 이 찢막한 책망 한 마디로 앞선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하게 되었다. 교회 사정을 알기 위해 바울이 30년 전에 이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보자. 바울은 교인들에게 영적인 축복 즉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보증이 그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하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했다. 특별히 둘째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기원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 만민을 포괄한다. 길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포함한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넘어서셨다. 높이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땅을 다 포괄한다. 깊이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에서 드러난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향해 이런 사랑을 갖고 있었을 것인데 점점 약화되어 갔다. ▶나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이 충만했는지 모른다. 신학교 때에도 음악을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쳤다. 하지만 점점 성공과 출세와 화려함과 박수갈채를 갈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순수함을 찾기 위해 어려운 지역의 목회를 시작했다. 대관령 목회를 시작으로 태백의 탄광촌 목회도 했다. 그 이후 주님은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지금 회상할 때마다 주님이 복 주신 비결은 첫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이라. 여러분도 절절했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고백들이 있었던 그때 그곳으로 가시기 바란다. ▶주님은 첫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교회를 향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신다. 첫째는 생각해야 한다. 아마도 그 일 또는 그 사람이나 사건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이다. “주님, 제가 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 향한 사랑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자세와 행위로 돌이키라는 것이다. 일부러 의지를 동원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 인생과 그 교회에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경고다. 주님께로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첫 사랑과 첫 행위를 기억하시고 회복하기를 기원한다.